

이용선 국회의원, 태국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연수단 면담

- 양국 정치 및 선거제도 발전을 위한 협력 기대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 및 국회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서울 양천구을)은 4월 30일(화) 14시 30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잇티폰 분쁘라콩 (Ittiporn Boonpracong) 태국 중앙선거관리위원장(Chairman of the Election Commission of the Kingdom of Thailand) 및 연수단과 면담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정책, 양국 선거제도와 정치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태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번 연수단은 정부부처 고위공직자, 의회 및 정당 관계자, 민간기업 대표 등 42명으로 구성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박은미 국제국장과 성철권 국제국 부장이 배석했다.

이용선 의원은 대한민국과 태국은 서로 가까운 국가임을 강조하며 태국이 한국전에 참전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한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미얀마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태국이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잇티폰 분쁘라콩 위원장은 한국의 선진 선거제도 및 정치체제를 학습하기 위한 연수단의 방문 목적을 설명하며, 전세계적으로 많은 당원 수를 보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운영방식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한국 선거제도와 정당정치에 대한 연수단의 질문도 이어졌다. 이용선 의원은 선거공영제가 관권·금권선거의 제한하고 정치신인이 지역에서부터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온라인 입당시스템과 당원 권한 확대, SNS 등을 통한 당원 및 유권자와의 양방향 소통 등을 정당 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양국 선거제도 경험 등을 공유하며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진]



